

지역 소식통

부안군,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

부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산정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

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2월 21일까지 부안군이 조사·산정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 17,287호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진행된다.

정부의 과표현실화방안에 따라 2022년 부안군의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83% 상승했다.

이번 검증기간에 한국부동산원은 부안군의 개별주택산정가격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산정의 적정성,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된 개별주택가격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자원순환정책
실천위 구성

고창군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2명 외에 ▲비영리 환경단체(4명) ▲전문가(2명) ▲군의원(1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민대표(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군민 대표로 위촉된 이상훈 위원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고창군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과 활용방안, 자원순환 문화 조성, 교육·홍보 등에 관한 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또 정책·재정 등에 관한 자문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환경시설 사업소 이광수 소장은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된 정읍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정비와 노동·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 환경개선과 복지 편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기숙사와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별 보수를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4천 만원을 편성했다.

총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의 분담 비율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업체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복지 편의 개선사업에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희망 업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2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지역 내 30개 업체를 선정해 조명, 바다, 대기 배출시설, 화장실 공사 등 4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최첨단 ICT가 접목된 미디어아트쇼가 선보여진다. 특히 올해 열리는 '고창 고인돌유적 미디어아트쇼'에 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만의 이간관람형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상적인 미디어아트쇼로 선보인다

고창군, 갯벌활용 문화재청 미디어아트 기획용역 공모 선정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최첨단 ICT가 접목된 미디어아트쇼가 선보여진다. 특히 올해 열리는 '고창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쇼'에 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만의 이간관람형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3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 기획용역 공모사업'에 고창갯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오는 7~8월에 진행될 문화재청 '2023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의 지자체 사전기획 지원 사업이다.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장소성, 가치 특성을 반영한 첨단 실감 콘텐츠 융합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기획과 스토리 개발이 핵심이다.

고창갯벌의 단순 체험을 넘어서 세계유산과 예술 ICT를 융합한 첨단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스토틀링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의 우주, 살아 숨 쉬는 고창갯벌"을 주제로 주요 키워드인 멸종위기 철새, 높은 생물 다양성 등 고창갯벌만의 고유한 생태적 가치를 다양한 미디어 기법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고창군청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세계유산인 고창갯벌의 중요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이 미디어를 만나 생명을 주고 재조명을 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수제화 장인 육성 사업 교육생 첫 창업점포 '오픈'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3년간의 훈련과정 거쳐 창업의 꿈 결실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이 첫 창업점포의 문을 열었다.

시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취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메이커센터'를 운영하며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사업은 행안부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수제화 기능인의 노력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제화 사업을 지방의 저력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이 첫 창업점포의 문을 열었다.

한 땅과 인력 공급을 통해 비교우위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읍 특색의 수제

화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곳에선 미래의 수제화 장인을 꿈꾸는 20여 명의 교육생이 1대 1 도제 방식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취업과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이 첫 창업점포인 '제임스 415' 매장을 개업했다.

'제임스 415' 고도현 대표는 3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쳐 본인의 제화스타일을 만들어내며, 기성화 제품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수제화 전문점 창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개업식에는 한파가 몰아닥친 추위에도 불구하고 슈메이커 양성반 교육생들과 강사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청년 창업인의 첫출발을 축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믿고사는 높을고창' 인지도 강화

전북 고창군이 '높을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출시 3년여를 맞아 대대적인 브랜드 강화전략을 추진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수와 사용단체 대표, 실무자 등이 참여한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추진현황 보고, 품질 관리방안, 애로사항, 판로개척, 홍보 등 브랜드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고창군은 2019년 브랜드 개발을 완료한 이후로 2020년 수박, 멜론, 친환경 쌀, 2021년에는 딸기, 고추, 지주사김, 고구마를 인증 품목으로 결정해 현재 총 7개 품목에 14개 단체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0개 품목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창군의 다양하고, 고품질 농특산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농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을고창 이모티콘 개발, 디지털 브로셔 제작, 라이브커머스 판매, 온라인 경매행사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주민건의현장 13개소 현장방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현장행정 넷째날 보인면 '군당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현장'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상서면 '힐링 개암동 관광지 정비사업' 등 주민행복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진행 상황을 살폈다.

평소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권익현 군수는 지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읍면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고 마을 주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재 권익현 군수는 18일부터 28일까지 부안읍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읍면 주민행복사업 대상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현황 주민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순기



에 앞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022년은 새로운 부안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시기다"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다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빠른 길이며 책임정치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